2021년 10월 31일 (녹) 연중 제 31 주일 No. 1285

묵주의 기도 성월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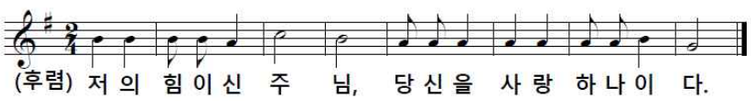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신명 6,2-6

**[화답송]** ..... 시편 18(17), 2-3ㄱ.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이 뿔, 저의 성채 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 되었나이다. ◎

**[제 2 독서]** ..... 히브 7,23-28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2, 28ㄱㄷ-34

**[성가안내]**

- 입당성가 [64] 이스라엘 들으라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제물
- 성체성가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271] 로사리오 기도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 사 봉 헌

| 연미사 | 봉헌 |
|---|---|
| 김 진형 치프리아노<br>강 견대 마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 이 경자 율리안나<br>율릿다 김 경련 |
| **생미사** | **봉헌** |
| 김 주원 루시아<br>국 태호 마리나<br><br>공 미진 마르시아<br>박 수정 크리스티나/박수진 줄리아 | 김 베네딕도<br>전 석원 미카엘<br>전호정 마리아나<br>박 카타리나<br>양미숙 마리아 |

**Daylight saving :**
다음 주일, 1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일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기도 | 성찬봉사 | 복사 1 | 복사 2 |
|---|---|---|---|---|---|---|---|
| 10월31일 | 이지훈<br>아네스 | 강호영<br>대건 안드레아 | 박신희<br>리나 | 강호영<br>대건 안드레아 | 양미숙<br>마리아 | 장동엽<br>에드문드 | 장동환<br>헨리코 |
| 11월7일 | 장혜윤<br>크리스티나 | 민완준<br>필립보 | 이경자<br>율리안나 | 이경자<br>율리안나 | 김지영<br>유스티나 | 신혜정<br>소화데레사 | 김승현<br>마리아 |

● 미사 시간 전에 묵주의 기도 1단 씩 바칩니다.
10월 묵주의 기도 성월을 맞아 매 주일 미사 전에
'영광의 신비' 1단씩 마칩니다. (10/31-5단)

● 꾸르실료 교육 안내입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21. 11. 11(목) ~ 11. 14(일)
- 참가자 : 김 이 엘리사벳, 장혜윤 크리스티나
- 봉사자 : 김 미화 마리 끌레어

● 제 186차 은총의 샘 꾸리아 Zoom Meeting
- 일시 : 2021. 10. 31. 오후 2시
- ID : 81952811592 - Pass Code: X4344Z
- 대상 : 모든 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

● 11월 2일(화) 오후 7시 위령의 날 미사가 미국본당에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연령의 이름이나 사진을 10월 27일까지 전례부장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282-1662) 신청해 주세요.
- 신청 안 하신 분도 당일 미사에 참석하여 제단 앞에 이름, 사진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 [성사 안내]

| | |
|---|---|
| 주일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미사 |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
| 고해성사 |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
| 혼인성사 | 당분간 중단 |
| 유아세례 | 당분간 중단 |
| 예비자 교리 |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br>주일 10:30am – |

## [단체모임 안내]: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일단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 | | |
|---|---|---|
| 울뜨레아 | 첫째 주일 11:00 am | Conf. Rm(2F) |
| 학부모회 | 첫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1B |
| 요셉회 | 둘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2E |
| 성모회 | 둘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2C |
| 연령회 | 둘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1B |
| 꾸리아 | 셋째 주일 11:00 am | Conf. Rm(1F) |
| 양업회 | 셋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2E |
| 성령기도회 | 매주 화 06:00pm~07:30pm | Conf. Rm(2F) |
| 예수성가정회 (FYMNY) |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
| 사목협의회 |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2C |
| '신명' 풍물패 | 둘째, 넷째 주일 2:00pm~ | 교육관 3A |
| 예비자 교리반 | 매 주일 10:30 am ~ | 교육관 3A |
| 청년회 | 매 주일 10:30 am ~ | 교육관 2A |
| 청년 찬양팀 | 둘째 토요일 3:00pm~ | 교육관 3B |
| 청년 전례부 |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 교육관 2E |
| 청년 성령기도회 | 매주 화요일 6:30pm~8:00pm | 교육관 2C |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한반도 평화기원, 밤9시 주모경 바치기를 기억하세요^^

◈ 묵 주 기 도 성 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 [2021년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12, 28ㄱㄷ-34)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려 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 22,34-40; 루카 10,25-28 참조). 다만,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만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다."라는 율법 학자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하느님께 형식적으로 봉헌하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물을 봉헌하기만 하면 하느님께 바쳐야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신의와 하느님을 옳게 아는 것을 더 바라셨습니다(호세 6,6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 제물을 봉헌하고 전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미움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그 어떤 계명보다 강조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웃 사랑을 강조한 것은, 모든 이가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미사에 참석한다고, 주일의 의무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감사드릴지 생각하며, 만약 미워하는 이웃이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함께'라는 단어와 그의 얼굴을 같이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박 형순 바오로 신부 -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 "공감"

돈 안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같이 느껴주고 함께 해 주는 것인데, 공감은 사람 마음을 사로 잡는 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로저스는 "사람은 온전한 공감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정이나 성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상담을 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 주기는커녕 가지 이야기만 퍼붓다가 싸우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공감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소리칠 때 "아 맞아요"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아 ~ 그럼 내가 돈 벌어 올테니 당신이 집안일 해봐!"하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남자들은 돈만 잘 벌어 오는데 ~ 당신은 왜 그래?"하고 부인이 타박을 주는데 "아 당신 말이 맞아~난 못난이야"라고 말할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본당 신부를 따르고 떠난 다음에도 잊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그 본당 신부가 공감을 잘해 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미사시간에 늦게 들어왔는데 강론 중인 본당 신부가 그 신자들을 보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천천히 숨 돌리고 앉으세요~" 하면 신자들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란 것들이 어떻게 미사에 늦을 수가 있어?!" 하며 소리소리 지르거나 아예 성당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 상처 입은 신자들은 말 그대로 냉담하게 됩니다.

대개 신자들을 야단치고 눈을 부라리는 신부들은 성격장애자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목자답게 행동했다고 자부심을 갖지만 사실은 공감 능력 부족자들입니다.

보좌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떠든다고 미사시간 내내 벌을 주는 보좌 신부 옆에는 아이들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신부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어떤 보좌신부가 미사 중 떠드는 아이들을 보더니 가장 심하가 떠드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야, 임마! 너 생긴 건 고유처럼 생겼는데 왜 떠드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우~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유같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날부터 그 보좌신부의 오른 팔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감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대화법 입니다.

어떤 동네에 남편에 대한 공감이 뛰어난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동반 모임을 가게 됐는데, 한 자매가 "난 우리 남편 머리가 하얗게 셌으니 흰옷을 입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매가 "난 우리 남편 머리가 아직은 검은색이니 검은색 옷을 입어야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자매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남편 머리가 대머리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